

안보 내세워 보수층 결집 ... 민주당·사제단 동시 압박 ‘특검 피하기’

박대통령·정총리 사제단 발언 강경대응

민주 “시국 엄중...특검 수용이 해결책”

박근혜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25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 교구의 지난 22일 시국미사에서 나온 북한의 연평도 포격 관련 발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표명, 파장이 확산할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이 연평도 포격 3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지금 북한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누워치기는 커녕 이제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고 죽음으로 나라를 지키는 장병의 사기를 꺾고 그 희생을 헛되게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미사에서 박창진 원로신부가 “북방한계선(NLL)에서 한미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싸워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예요”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것은 장병과 묵묵히 살아가는 국민에게 큰 아픔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저와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하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의 비판은 훨씬 수위가 높았다. 정 총리는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박 신부의 발언에 대

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박 신부의 발언은 사제(司祭)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을 망각한 언동으로 북한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과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각각 군통수권자와 행정부를 통괄하는 총리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를 지키는 일에 대한 강한 사명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민주당을 동시에 압박하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계속 시국미사를 하겠다고 밝힌 정의구현사제단의 향후 행보에 힘을 빼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나아가 야당이 주장해온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등 정치적 현안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다.

문제는 대통령과 총리의 이 같은 강경한 발언으로 ‘중복 논란’이 더욱 거세지면서 국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미저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 입장에서 이는 호재라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시국미사 발언의 원인을 대통령의 태도에서 찾고 ‘중복 논란 발언’에 대해서는 선긋기를 분명히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직자가 현실 정치를 거론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나라가 대단히 불행하고 엄중한 상황으로 내닫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 뒤 “민주정부 10년간 NLL을 한 치의 빈틈없이 사수했고 앞으로 계속 사수할 것이다”며 ‘선 긋기’를 분명히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종교인의 정치참여가 문제가 아니라 종교인까지 나서야 할 만큼 사태를 악화시키고 불법을 방치한 게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해자 최고위원도 “국민의 합리적 비판에 대한 응답 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선 불복 겁박이 오히려 대선 불복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과 특위를 받는 것이 현 정국을 그나마 수습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용진 대변인은 “총리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침소봉대하는 이유가 국가기관 사건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맞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북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박창진 원로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위해 국회에서 만나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대치 정국 풀기’ 어렵게 만난 여야...결과는 ‘빈 손’

野 “4인 협의체 만들자”

與 “4일 내 답변주겠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5일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회담을 했지만 구체적 성과 없이 끝났다.

김 대표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5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로 ‘4인 협의체’를 구성, 이 협의체 산하에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도입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신설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의 방향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정치 개혁 문제를 논의할 기구 3개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뜻어도 나을 대로 김 대표에게 답변을 주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4인 협의체”를 구성, 이 협의체 산하에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도입과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 신설 ▲새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 심의 방향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정치 개혁 문제를 논의할 기구 3개를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이어 “여당이 어렵게 특위를 수용한 만큼 전례대로 (정치 쟁점과) 예산안을 분리해 조속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김 대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의 이날 제안은 결국 특검과 특위를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의 틀을 사실상 그대로 유지한 일부 절충안으로 새누리당은 받아들이고 있다.

황 대표는 회담에서 정기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한 특위 수용은 가능하지만, 특검 도입은 받아들이지 않는 기존 입장을 김 대표에게 다시 한번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열린 이날 여야 대표 회담은 지난 11일 황 대표가 민주당 여의도 당사로 김 대표를 찾아가 회담한 지 2주 만에 열린 것이다.

앞서 황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원만한 국정운영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정치권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송구스럽다”면서 “여야 대표들도 이 문제에 대해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민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는 자세로 이 자리에 왔다”면서 “(김 대표의 말을) 경청하고 자도 하심탄하게 말해서 좋은 결실을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이제라도 정치가 제자리를 찾아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한다”면서 “대선 관련 의혹사건은 특검에, 또 재발방지 등 제도개혁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각각 맡기고 여

야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법안 및 예산 심의에 전념하자”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올 국민소득 2만4000달러 사상 최대 전망

분배 지표 뒷걸음...성장 과실 상위층만 누려

올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소득이 2만4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환율 하락이 국민소득 증가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환율 효과를 제외하고 나빠진 분배 지표를 고려하면 경제 성장의 과실을 상위층만 누리는 셈이다.

1인당 소득은 2007년 2만달러로 올라선 이후 사실상 7년째 제자리걸음이나 다름없다. 일본이 2만달러(1987년)에서 3만달러(1992년)로, 3만달러에서 4만달러(1995년)로 도약하는데 각각 불과 5년, 3년 걸린 것과 큰 차이가 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민총소득(GNI) 추계치를 인구로 나눈 1

인당 국민소득은 2만4044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나는 요인은 경제규모를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와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다.

GDP가 증가해 ‘파이’가 커지고, 환율이 지난해 1,102원에서 올해 1,095원으로 하락함에 따라 달러화로 환산한 GNI가 더 늘어난 결과다.

인구가 5022만명으로 지난해보다 0.43% 늘어나는 데 그친 것도 1인당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됐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난 데는 GDP 효과가 3.3%, 환율 효과가 2.9%”라며 환

율 효과가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어디까지나 평균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동등한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소득분배 지표(5분위 배율)를 보면 올해 9월 말 현재 고소득층(5분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저소득층(1분위 계층)의 5.05배로, 지난해의 4.98배보다 커졌다.

선진국에 견주어 뒤처지는 사회 투명성, 서비스 산업의 더딘 발전, 심각한 저출산·고령화가 1인당 소득 증가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합뉴스



하나투어

www.HanaTour.com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낭만이 있는 겨울여행, 하나투어와 함께 하세요!

무안출발 캄보디아 전세기

2014년 01월 01일 ~ 2014년 2월 26일
매주 수요일(3박4일)/토요일(4박5일)

[하파캐주일] 앙코르왓 4일/5일 599,000원 ~ *'얼리버드' 20석 한정(앙코르왓+5대특석) ●호텔: 캄보디아 호텔 또는 동급 숙소 ●특선: 5가지 특식 제공, 캄보디아 기념품 3종 세트 제공	[하파캐주일] 앙코르왓 4일/5일 799,000원 ~ *'나눔여행' 21일 공동체(전신미사지+6대특석) ●호텔: 앙코르 하이라이드 호텔 또는 동급 숙소 ●특선: 6가지 특식 제공, 캄보디아 기념품 3종 세트 제공, 봉사활동 2시간 증명서 발급, 전신미사지
[하파캐주일] 앙코르왓 4일/5일 999,000원 ~ *'360프로모션' 금행(VISA포함)한방미사지+6대특석 ●호텔: 에리호텔 또는 동급 숙소 ●특선: 6가지 특식 제공, 캄보디아 기념품 3종 세트 제공, 스마트폰 앙코르 쇼, 한방미사지	[하파캐주일] 앙코르왓 4일/5일 1,149,000원 ~ *'디딤' 금행(VISA 포함)한방미사지+6대특석 ●호텔: 앙코르하이라이드 호텔 또는 동급 숙소 ●특선: 6가지 특식 제공, 캄보디아 기념품 3종 세트 제공, 스마트폰 앙코르 쇼, 담뱃갑

부영CC / 포키트라CC / 앙코르 54홀
캄보디아 씨엠립 4일/5일

실속골프

[특급] 캄보디아 4일 / 5일 **1,399,000원 ~**

●특선: 성인 1인 동반을 1개 중점

●포함 사항: 그린피, 캐디, 전용 카트, 골프장 차량, 중식 3회, 캐디, 클럽/슈즈 렌탈, 기타 개인 장비

명품골프

[초특급] 캄보디아 4일 / 5일 **1,749,000원 ~**

●특선: 전신미사지 2시간, 성인 1인 동반을 1개 중점

●포함 사항: 그린피, 캐디, 전용 카트, 골프장 차량, 캐디, 클럽/슈즈 렌탈, 기타 개인 장비

하나투어 창립 20주년 기념 Festival

고객님이 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기간 : 2013년 10월 1일 ~ 11월 30일

[CBPF01-02G] 북경(베이징) 4일 399,000원 ~ 출발일 11월 매주 화요일 출발 *호텔: 중 4성급 2박 / 중화민국 1박 *특선: 만리장성 케이블카, 청지서커스, 발마사지	[ICPF01-MUB] 상해/주자각/소주/항주 5일 449,000원 ~ 출발일 12월 7일, 20일(토) *호텔: 4성급 호텔 *특선: 상해 서커스, 발마사지, 주자각
[APPF01-MUS] 상해/소주/주자각 4일 299,000원 ~ 출발일 12월 11일(수) [단1회] ●특선: 수험생인 경우 수능 수험표 지참시 단체배차 무료, 상해 서커스 관람, 전경 발마사지(명사지) 15분 별도 ●포함 사항: 유류항공료, 중국단체비대비용, 가이드/기사/기타, 기타 개인장비 및 선착환	[APPF01-ZAD] [상해경유]방콕/파타야 5일 999,000원 ~ 출발일 2014년 1월 4일, 25일, 2월 8일, 15일, 20일 ●특선: 온돌금(4성급 호텔), '계절과일+음료'만 무료제공 ●포함 사항: 유류항공료, 중국단체비대비용, 가이드/기사/기타, 기타 개인장비 및 선착환
[APPF01-ZAV] [초특급] 캄보디아 4일 / 5일 1,749,000원 ~ 출발일 11월 매월 ●호텔: 온돌금 이슬라리조트 ●특선: 트라이시클 체험, 전일형식사제공, 세계 인기 배우 안무공연 1장(1명1회 한정)	[APPF01-ZAV] 호경투어+세일링보트 보라카이 4/5일 569,000원 ~ 출발일 11월 매월 ●호텔: 4성급 오션뷰호텔 ●특선: 아일랜트 호핑투어, 코코넛 오일마사지, 세일링 보트, 시원한 배수 혹은 음료 제공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됨.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의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로구 광명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종로구청) ■관광블로그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